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졸업감사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게 돌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미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한결같으셔서 아무도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뜻대로 안 된다고 안달하지도 말고, 잘 된다고 빠기지도 말고, 꾸준히 그리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각급 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총을 주셔서, 저들이 내딛는 새로운 한 걸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순례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어둠 속에 가라앉아 더 이상 무엇을 바라볼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 가슴에 슬며시 찾아와 등불을 밝히십니다. 세상이 온통 어둠뿐이라고 주저앉아버리고 싶을 때 주님은 어느새 우리 영혼 속에 스며들어 불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서 옛사람의 옷을 벗겨주시고,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고후4:6 인도자

♠ 교 독 문 37. 이사야40장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박옥식 전도사

사도신경 다함께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303. 가슴마다 파도친다 다함께

성경봉독 겔47:6-12 구명자 권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408.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
십시오. 인생의 얽은 물가에 서성이던 삶을 청산하고 진리의
바다에 뛰어드십시오.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지만, 약한 이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사랑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다 함 께 : 주님, 우리를 추수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십시오. 둔하고 어
리석고 겁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
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꾸짖어 주시고, 유혹 앞에 흔들릴 때 우리의 든든한 반석
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에스겔 통독 강좌(16)	로마서 강해(67)
기도: 이호원 권사/김시영 권사(15일)	기도 : 정경례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홍 목사 김기석 목사	박효선 권사 윤정덕 장로	인도자 김 극 집사

2월	영접위원	한완식	김정길	백승민	유영남	최영혜	권미정
	헌금위원	김철수	박창운	김용진	임창선	곽해자	김성자

세 사람

사람의 운명은 모르는 일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일생을 끝내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대로 평생을 삽니다. 그 불행한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미움받으며 업신여겨지며 살아가는 거지.

7시 반쯤 목욕탕에 갔더니 모녀 세 사람의 여자거지가 와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살갓이 검고 어깨까지 늘어뜨린 머리칼은 엉클어지고 까실까실했습니다.

내가 갔을 땐 탕에서 나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남자가 입는 윗도리로 너털너털해진 걸 깎지도 않고 빨지도 않아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되는 분은 단지 빨간 속치마와 기름때가 묻은 국방색 외투를 입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목욕탕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들을 보자 대뜸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오는 사람 오는 사람 차가운 눈빛으로 흘려보았습니다. “어머나! 이견, 이견 훌륭한 손님이네!” 하며 큰소리로 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뭐라 떠들어도 입을 다문 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탕에서 나와, “야아, 이것 봐, 구질구질하게 시리, 밖에 나가 입어!” 하고 밀어내듯이 닥달했습니다. 그러자 중 3학년 쯤 되어 보이는 언니가 “아니에요. 이는 없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가 윗을까봐 나가라고 하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누가 이가 있다고 했나. 떠들면 가만 안 들 테다. 이 멍청아!” 하고 아까보면 아주머니가 화를 내며 눈을 흘겨보며 밉살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말문이 막혀 입을 다물었다가 곧장 어머니를 향해 “엄마, 빨리 입어!” 하고 통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 하고 어쩔 수 없는 듯이 대답하고는 얼른 서둘렀습니다. 옷을 모두 입자 세 사람은 말없이 나갔습니다. 어머니 되시는 분은 약간 비틀거리는 듯 보였습니다.

나는 내가 가난한 때문인지 이런 사람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파웁니다.

모양새나 옷차림이 더러울 뿐인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업수이 여겨지고 미움받는 것입니다. 같은 인생이면서 남에게 미움받고 멸시당

하면 얼마나 가슴아픈 일이겠어요.

거지가 될 지경까지 왔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었겠어요. 죽어버렸으면 싶었던 때는 없었을까요? 분명 몇번이고 몇번이고 있었겠지요. 그런데도 살아온 것입니다.

나는 세 사람이 나간 뒤를 슬픈 마음으로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은 어디서 잘까요? 먹을 것은 있을까요? 내일도 또 어디선가 누구한테가 미움받으며 괴롭힘을 당하며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가엾기 그지 없습니다. (재일 동포 소녀 스에코의 일기, 1955년 4월 23일)

두 남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누나인가 하고 뛰어나가 보았더니 낯선 남매 거지가 깡통을 들고 밥을 얻으러 왔어요.

“밥 좀 주이쇼.”

하는 소리가 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그랬지요. 태운이를 데리고, 순나를 데리고 이렇게 남의 대문간을 찾아다녔지요.

“어서 들어오나.”

나는 얼른 거지 남매를 집안으로 불러들였어요.

어찌 보면 좀 낯익은 얼굴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부엌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순나가 뜨끈뜨끈한 밥을 두 그릇 떠서 그들에게 주었지요.

두 남매는 눈이 둥그런 채 나를 한번 보고 밥그릇을 한번 보고 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었던 모양이지요.

“피떡 먹어라. 배 안고프나.”

하니 두 남매는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나와 순나는 우두커니 서서 밥 먹는 남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쌍한, 이것들이 옛날의 우리였습니다. 정말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만 술을 잡숫지 않고 부지런히 상 일을 하신다면 이놈들 둘쯤은 같이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두 남매를 보내며 나는 다음에 또 오라고 당부했습니다.

대문간에 한참 동안 서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가는 두 남매를 지켜 보았습니다.

(윤복이의 일기, 1965년 10월)

▣ 마/음/으/로/위/는/글

교회학교 교사

교육부장 - 구명자 권사 교회학교장 - 김인걸 권사
유아부 - 한선희 김진경 박현우 이수정 최희영
유치부 - 안정숙 김문주 박준영 김용원
유초등부 - 최성애 엄혜영 광권희 김남홍 임보람 한지혜 고정철 유경순
중고등부 - 박효선 문영혜 황경순 박정숙 김주영 한성건 최인환 조관행
청년부 - 김재홍

각급 학교 졸업생과 멘토

유치부 - 윤형준(박준영) 박소연(김문주)
 김지원(김용원)
아동부 - 조지연(광권희) 김수현(문영혜)
 박영실(박현우) 고요한(권미정)
 김지현(한선희) 김태미(오현정)
 김재환(유경순) 양성모(최희영)
중등부 - 김서현(안종일) 윤 윤(최인환)
 하진솔(엄혜영)
고등부 - 박인혁(이지훈) 우승수(박정숙)
 황건호(김남홍)
대학 - 한성건(조항범) 박병선(이한립)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박옥식 방현복 이부방 윤정덕 구성실 한상의 정영선
 방문성 박혜경 오진훈 노순옥 임창선 조문규 진정숙 이인웅 김시영
 이소순 이정규 이인섭 윤미경 김지윤 김지호 영혜영 남상욱 김명숙
 노용래 김순복 전영웅 임원민 임수연 이봉배

월정헌금:

백묘현 문금석 김명순 이응구 한선희 조병주 김종문 지명주 조항신
 윤주원 최윤선 김홍기 송의섭 임원민 임수연 노미향 이증자 김승현
 김수진 최성애 하현철

감사헌금:

박준희 이기분 윤정덕 구성실 이인섭 김재흥 김희우 최인환 박미영
 무명2

생일감사헌금: 문금석 장혜숙 구도헌금: 최희영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교 회	차 혜 심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김 미 순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곽 권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문 영 혜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백 묘 현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이 인 섭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이 기 분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이 순 정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숙		이 정 은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흥 숙		구 성 실
나 사 렷	백 혜 숙	정 옥 영		김 시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송 양 진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조 항 미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졸업감사** : 각급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여러분들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 **교사임명** : 2004년 한 해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수고하게 될 이들을 위하여 늘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3. **월례회** : 예배 후 제1·3·4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4. **간담회** : 각 선교회 회장 간담회가 다음 주일(15일) 오후 집회 후 어린이 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서로의 목표를 확인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5. **성가대** : 대원을 모집합니다.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길 원하시는 분은 성가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 **지방회** : 2월 10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구역회에서 대표로 선출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십시오.
7. **신앙실천** :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듯, 겨우내 우리 마음에 쌓였던 무기력과 영적 게으름을 청산하십시오. 매일 30분 정도를 구별하여 기도와 말씀 읽기에 바치십시오.

*헌물 - 키보드2 (새로 권사된 분들+익명)

*헌화 - 김중수/이순정(부모님 추도)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학생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부	16:00(±)	청년부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